

<圖書館紹介>

# 서울大學校 圖書館

金 光 永

(서울大學校圖書館)

서울大學校 圖書館은 서울大學校 綜合化에 따라서 관악캠퍼스로의 移轉을 계기로 東洋 最大의 施設規模를 갖춘 大學圖書館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서울大學校 圖書館의 발전과정을 우선 생각하고 그 현황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沿革

서울大學校 圖書館이 內外에 자랑으로 생각하고있는 奎章閣圖書는 李朝 正祖元年(1776)에 昌德宮 內禁苑 北쪽에 創建된 內閣書庫인 奎章閣에 收藏되어온 歷代王室의 藏書가 大部分이며, 隆熙元年(1907) 奎章閣의 廢止로 因하여 宮內府 帝室圖書課에 併合되어 收藏된 圖書 및 諸 記錄中에서 韓日合併後 舊總督府 取調局에서 移管된 (1911년 6월) 圖書 및 諸 記錄이 合쳐진 것이다. 이것이 1912년 4월 舊總督府 參事官分室로 移管되고 1922년 11월에 舊總督府 學務局으로 移管된 것인데 京城帝國大學이 設立되자 1928~1930年間 3次에 걸쳐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으로 移管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이란 역사적 전환기를契機로 하여 사무실, 열람실 등 519坪과, 書庫(4층) 392坪의 건물과 舊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의 舊藏書 55200冊을 인수하여 京城大學 附屬圖書館으로 발족하였다.<sup>6</sup>

1946년 8월 22일 『國立서울大學校設立에 관한 法令』의 공포로 본관은 『國立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으로 개칭되었다. 1949년 12월 31일 본교가 서울大學校로 개칭됨에 따라 본관은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으로 개칭되었다. 1961년 5월 4일 國務院令 第254號 國立學校設置令의 개정으로 본관에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의 직제를 두게 되었다. 1965년 7월 9일 大統領令 제 2171호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에 의하여 조사과를 신설하여 4개과로 기구를 확장하였고, 필요에 따라 본관을 둘 수 있게 되었다. 1966년 2월 18일 서울대학교규칙 제418호로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분관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분관으로서 공학, 교육, 농학, 문리, 미술, 법률, 상경, 약학, 음악, 의학, 치의학, 행정도관 서등을 두게 되었다.

1967년 1월 30일 서울대학교 규칙 제67호로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1961년 9

월 29일부터 시행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을 폐지하였다. 1968년 3월 1일 서울대학교규칙 제418호에 의거하여 신문, 교양도서관 신설로써 14개의 분관을 갖게 되었다.

1975년 1월 20일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문리도서관, 교육도서관, 법률도서관, 교양도서관, 신문도서관 행정대학원도서관, 상경도서관, 그리고 약학도서관 등은 관악산의 새 캠퍼스에 위치한 단일의 도서관건물로 이전을 하고, 서울대학교 설치령의 개정(대통령령 7565호)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은 서울大學校 圖書館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이전된 각 분관을 흡수하여 일원화된 도서관이 되었고, 도서관에는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 참고서지과, 규장각도서관리실을 두게 되었다. 각 과에는 과장을 행정직 서기관으로 하고, 규장각 도서관리실장에는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도록 하였다.

1975년 10월 현재 도서관 직원은 정규직이 56명, 고용원이 18명, 임시직이 37명 모두 111명이다.

## 2. 現 況

서울大學校 圖書館은 大學의 心臟部로서의 機能을 발휘하기 위하여 各 教育施設로부터 5분이 소요되는 거리인 캠퍼스의 中心에 자리잡고, 總 9,244坪의 6層 建物안에 약 4,000席의 閱覽席과 120만권의 藏書를 收藏할 수 있는 書庫 새로운서가, 책상, 의자 등 기타 施設을 갖추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의학도서관과 농학도서관의 장서를 합하여 약 93만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날 서울大學校에는 中央圖書館으로서 附屬圖書館과 14개 분관 및 7개 도서실이 있었는데, 綜合化됨에 따라 農大, 醫大를 除外한 나머지 分館藏書를 흡수함으로써 藏書가 增加되었다.

### 가. 수서과

수서과는 대체로 도서를 비롯한 도서관자료를 구입, 수증, 혹은 교환에 의하여 수집함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 수서의 범위는 장서확장계획에 의한 도서선정의 정책수립, 자료의 선정, 수서 및 교환계획, 주문, 검수, 자료의 서지사항에 관한 조사, 말하자면 중복조사,

제본, 그리고 기록의 보존 등을 포함한다.

수서과는 서무, 회계, 교환, 등록 등 4개의 係로 나누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교환계는 주로 국내·국외의 도서관과의 자료교환, 및 수증도서 관리, 학술잡지의 선정, 발주, 접수, 그리고 제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등록계는 도서의 선정, 구입, 주문, 접수, 도서의 중복조사, 등록, 원부작성, 장서현황통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장서의 균형있는 수집을 위하여 교수들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서무계는 직원의 인사관리, 문서관리 등 일반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에서는 예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나. 정리과

정리과는 분류계, 목록계, 조정계 등으로 나누어 도서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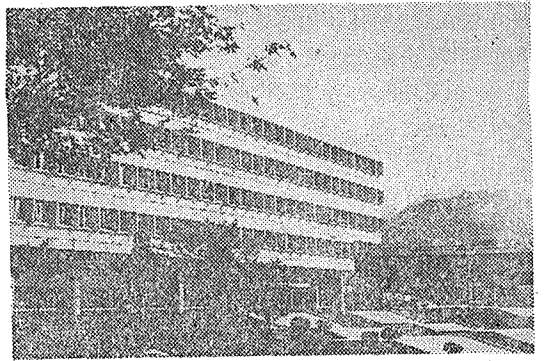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도서를 분류함에 있어서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16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전개되어나오는 17, 18판을 참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종 학문이 문화와 시대의 발전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 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D.C. 자체가 너무 歐美 중심으로 전개된 분류표이니 만치, 동양학 분야, 특히 한국 부분은 불합리한곳이 적지않다. 그리하여 본 도서관에서는 D.D.C. Revision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D.C. 전개표)를 만들어 그의 단점을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奎章閣圖書 140,534책은 四部法(經, 史, 子, 集)에 의하여 분류되어 있으며, 舊刊圖書 407,234책은 東書인 경우에는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에서 만든 「和漢書分類法」에 의하여, 洋書인 경우에는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에서 만든 『Classification of European Books』에 의하여 분류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목록을 함에 있어서 標目的 選定은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에 의하여, 目錄의 記述는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에 의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카아드의 排列은 A.L.A. Rule for Filing Catalog Cards에 의하여 배열하고 있다. 이밖에 目錄記述에 있어서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도 참고로 하고 있다.

또한 東洋書에 있어서 國內圖書는 한글 로마자 表記法(1959년 문교부 제정)에 의하여, 中國圖書는 Wade-Giles식으로, 日本圖書는 수정 Hepburn식으로 저자, 혹은 서명을 로마자로 表記하여 目錄에 있어서, 서가에 있어서 西洋書와 함께 排列한다.

그리하여 서울대학교 圖書館에는 열람용목록으로서 신간도서의 분류목록과 저자 서명목록, 구간 동양서의



圖書館 前景

분류목록과 서명목록, 구간 서양서의 분류목록과 저자 목록이 있으며, 사무용목록으로서 기본목록과 서가목록이 있다.

정리과에는 조정계가 있다. 서울대학교 종합화에 의하여 의학도서관과 농학도서관을 제외하고 문리, 교육, 법률, 교양, 신문, 행정대학원, 상경, 약학도서관 등은 이미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음악, 미술, 공학도서관 등도 서울대학교도서관에 흡수되어 일원화하여 관리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정계에서는 일원화된 분류목록·방식으로 도서(주로 분관도서)를 재정리하고, 정기간행물의 별치로 인한 조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 열람과

열람업무는 대체로 장서관리, 대출업무, 정기간행물관리, 기본도서실, 및 열람실 관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참고실, 기본도서실, 정기간행물실(일부)를 제외하고 폐가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고는 대체로 분산되어 2층에 규장각도서, 4층에 정기간행물, 5층에 일반도서, 6층에 구간도서의 서고가 있다. 그리하여 서고가 대체로 폐가식 방법으로 이용되고, 서고가 분산되어 있으니만치 이용자가 보고자하는 도서에 대한 서지사항을 도서대출표 혹은 도서차람증에 기재한 후, 그것을 서고로 보내는 기계, 즉 Air Shooter를 사용하고 있다. 대학생을 위한 열람석이 3,130석, 대학원생을 위한 열람석이 800석, 교수를 위한 열람석이 70석, 규장각 도서의 열람을 위한 열람석이 50석 등 총 4,200석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열람실은 일반열람실, 자유열람실, 精讀室, 기본도서실, 정기간행물실, 교수 및 대학원생열람실, Group Study Room, 타자실, 문고실, 학위논문열람실, 특수자료실(불문간행물) 참고열람실, 서지실, 규장각도서 열람실, 그리고 서고에는 개인열람석(Carrel)등이 있다. 基本圖書室은 학생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문학, 전집, 역사, 교과서 등 교양도서를 비치하고

계가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본도서관은 指定圖書室로서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書誌室은 目錄, 색인, 抄錄, 書誌類 등의 各種 二次資料를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라. 참고서지과

참고서지과의 업무는 대체로 참고업무와 서지조사업무로 나누어 지는 바, 참고실, 서지실 등의 관리 및 복사실을 두어 문헌 복사도 여기에서 하고 있다. 신착도서 속보, 도서관보, 서울대학교 축차간행물 종합목록, 법률문헌색인목록, 서울대학교 간행물색인 등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또한 도서전시, 도서관 이용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마. 규장각도서관리실

규장각도서관리실은 규장각도서의 관리업무, 고서 및 고문서의 정리 및 열람업무, 규장각 도서의 해제업무 그리고 규장각도서의 전시를 담당하고 있다.

규장각도서는 원래 140,534책뿐이나, 그 관리나 운영의 편리를 위하여 순수한 규장각도서는 물론 古圖書, 古文書, 文庫古圖書, 新規收集古圖書, 冊板등도 奎章

閣圖書의 범주에 넣어 관리하고 있다.

1975년 10월 현재 규장각도서의 한국본 74,958책, 중국본 65,576책을 합하여 140,534책과 일반고도서 16,282책, 문고본고도서 7,870책, 고문서 50,249枚가 있는 바, 총계 214,935책이 규장각서고에 수장되어 있다.

규장각도서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을 얻고자 『규장각도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규장각도서중 한국본에 대하여는 해제위원을 위촉하여 해제를 하고 있다.

규장각도서의 범주에 속하는 문고본도서 가운데에는 故 方鍾鉉교수의 一簣文庫 古書 2,554册, 故 李秉岐교수의 가람문고 古書 1,608册, 故 李相佰교수의 想白文庫 古書 1,641册 등에는 많은 貴重圖書가 포함되어 있다.

1974년 4월 15일 경복궁에 소장되어 있던 奎章閣木板 17,637板과 서가 141개를 인수하여 보관중에 있다.

그 밖에 奎章閣圖書를 소장한 2층 서고에는 탄산가스消化裝置가 되어있다. 끝으로 1976년은 규장각을 설치한지 꼭 200주년을 맞게 되고, 서울大學校 圖書館이 창립된후 30주년이 됨을 밝혀둔다.

<書評>

光州學生獨立運動史

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編  
4·6倍版 718面 9,300원

1929年 光州學生獨立運動이 이룩난지 五拾年만에 「光州學生獨立運動史」가 發行되었다.

글[한자 한 句節 民族魂이 용솟음치는 이 책은 民族史와 더불어 存在할 것이다. 이 책은 運動에 直接 鬪爭隊列에 參加했던 歷史의 證人인 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의 編纂으로 意義를 倍加하고 있다.

民族正氣는 民族發展에 새로운 契機를 주워서 도와준다는 民族的意義를 한층 빛낼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서 文教當局의 良書推薦도 意義를 새롭게 한 것이다. 光州學生獨立運動은 처음 全南光州에서 이룩났으나 1919년 3·1運動이 이룩난지 10年째되는 1929년에 이룩난 것이므로 그 巨潮는 全國의으로 波及되고 다시 國外 問島에까지 巨濤와 같이 이룩나서 190餘校 參加學生 5萬4千餘名으로 우리 民族解放運動史에 2大支柱일뿐 아니라 世界弱小民族解放運動에 驚鍾을 울렸던 것이다.

本書에는 3·1運動以來 長期抗日戰이 經濟戰 文化戰으로 成長 드디어 爆發口를 多感한 學生示威로 全國의 運動이 된 것이다. 本書에는 日帝의 欺瞞政策 永久植民地化하려는 奴隸教育을 指摘하고 人生本然의 要求를 無視 抑壓한데서 이룩난 것임을 밝히었

다. 이 不自然한 植民主義를 糊塗하기 위하여 우리의 歷史教育을 全廢하였을뿐 아니라 後進族이며 野昧한 日本山 所謂 神代가 우리 古代史보다 優位인듯이 또는 同根인듯이 虛偽를 捏造한 것을 배우기를 強要한 것이 眞理를 사랑하는 學生間에 民族的興奮을 이르켰던 것이다. 그때 民族的 單一戰線인 新幹會 樞友會가 戰列을 가다듬고 한편으로 學生의 前衛同盟等을 主軸으로 靑總 勞總 農總等 社會團體가 從橫으로 連絡하여서 싸운 戰績이 눈에 보였다.

全體로 行文이 流麗하고 더욱 第1次인 11월 3일 示威의 50年前일을 刻一刻 憤怒와 興奮이 눈앞에 보는 듯이 敘述한 것은 成功의이었고 新幹會 勇士 韓龍雲 朱耀翰 特히 女學生示威主導였던 宋桂月等 感懷를 새롭게 한다.

卷末의 資料에서 獄中鬪爭記는 世界史에 드물 것이며 法廷鬪爭은 韓人辯護士의 總蹶起狀態를 비졌으며 그때의 全鬪爭의 動態의 紙面報導 各社의 論評 犧牲者의 이름 등 모두 貴重한 資料이다.

그리고 이러한 激浪속에서 敎職을 훌가분하게 떠난 宋鴻敎諭의 漢詩를 실은 것도 心襟을 울리고도 남음이 있다. (한국일보사論說委員 柳光烈)

購入處: 光州市黃金洞56-1

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서울鍾路區新門路2街12-5

西中會 (72)1788